

장백산천지

제 209 호

2012 년 5 월 4 일

금요일

“4.25”상방은 중국사람들의 합법적인 권리이다.

1999 년 4 월 5 일, 만여명 파룬궁학원들이 자발적으로 북경국무원신방판공실에 가서 청원한것은 가장 평화적이고 리성적인 상방으로서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4.25”상방의 직접 원인은 상방하기전 이틀전 천진경찰들이

40 여명 파룬궁학원들을 무리하게 체포하고 사람을 내놓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원인은 중공내부의 일부 정치 악인들이 줄곧 파룬궁을 박해했기 때문이다. 중공선전부에서 1996 년부터 무리하게 《파룬궁》책 발행을 금지하고 파룬궁학원들의 련공을 소란시켰다. 파룬궁학원들은 상방하여 세가지 요구를 제출했는데, 첫째 요구는 불잡힌 천진 파룬궁학원을 석방하는 것이고, 두번째 요구는 파룬궁책을 합법적으로 출판하라는것이며, 셋째 요구는 파룬궁민중들에게 합법적인 수련환경을 달라는것이였다.

보다싶이 “4.25”상방은 중공의 박해가 먼저이고 상방이 박해를 초래한 것이 아니였다. “4.25”상방은 법에 따라 박해를 반대한 것으로서 사악한 중공과 강택민이 박해를 초래한 것이다.



파룬궁학원들의 반박해는 그들의 언론과 신앙의 권리를 수호했다. 그러나 중공은 파룬궁에 대해 잔혹하게 박해했고 법을 파괴하고 있다. 만약 우리들이 저마다 명철보신하고 방관자가 된다면 누구나 다음번에는 피해자가 될 것이다. 파룬궁학원들은

자신의 권리를 수호했고 또한 모든 중국사람들의 권리를 수호했으며 올바른 사회기풍을 수호했다.

파룬궁학원들은 “진, 선, 인” 원칙에 따라 자신을 요구하고 남을 생각하는 훌륭한 사람들이였다. 그속엔 청렴한 관원, 속임없는 상인, 레물을 받지 않는 의사, 헌신적인 공정사, 교원들이 들어있다. 중공이 모든 국가의 선전기구를 총동원하여 탄압하고 비방하고 흑형을 감행했지만 파룬궁학원들은 여전히 신앙을 견지한 가장 믿음직한 사람들이다.

파룬궁을 인정하고 파룬궁반박해를 지지하여 좋은 사람이 되는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면 중국사회는 위기에서 벗어나고 평안히 아름다운 미래를 맞이하게 될것이다.

파룬궁학원들에 대한 박해를 정지하라고 호소



지난 4 월 22 일, 중국총리 온가보와 독일총리

메켈은 독일 하노버 공업전람회의 개막을 열었다. 독일, 덴마크, 스위스 등 나라에서 온 파룬궁학원들은 하노버시중심에서 집회를 열고 중공의 박해를 항의하고 파룬궁박해 원흉인 강택민류망집단을 처단하라고 요구했다. 중공내부에 량지가 있는 관원들은 시비를 나누고 함께 강택민집단의 파룬궁에 대한 피값을 청산하여 자기와 중화민족의 미래를 위해 착한 덕을 쌓으라고 호소했다.

정법위원회는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한 정치도구이다

정법위원회는 중공이公安、검찰원、법원、사법 4개 법제계통의 당사업무부이며 중공이 민중을 통치하는 가장 직접적인 독재정치이다. 정법위원회의 주요임무는 중공의 뜻에 따라 각 부문의 사상행동을 통일시키고公安、검찰원、법원、사법 등 부문의 이른바 “연합안건처리”를 실시하는 것이다.

사법독립은 현대문명사회의 공동한 가치의 표준이며 헌법의 기본원칙이다. 민주국가에서는 립법、사법、행정의 3 권은 나누어 독립하고 있다. 우리 나라 헌법에는 법원은 “심판권을 독립 행사하고 행정기관、사회단체와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되어있다. 어떠한 기구가 집행하는 국가권력은 죄다 헌법과 법률의 권리에 따라야 한다. 중공정법위원회는 법률을 룡가한 불법기구이며 “연합안건처리”는 어떠한 법률 기반도 없다.

기실 중공이 세운 헌법과 법률은 죄다 걸치레이며 국제사회와 본국민중을 기편하는 것이다. 중공은 종래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한 적이 없으며 줄곧 법률을 짓밟고 법률의 미명 하에 무고한 민중을 박해하고 있다. 중공은 무법천지의 범죄집단이다.

공안국、검찰원、법원、사법국을 통제하고 있는 각급 정법위원회서기는 권세를 배경으로 기만적인 수법을 써서 법을 어기고 법치를 파괴하는 최악의 괴수가 되었고 정법위원회는 강택민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정치도구로 되었다.

정법위원회는 강택민이 파룬궁에 대해 “명예상에서 더럽히고 경제상에서 무너뜨리며 육체상에서 소멸”하는 범죄정책을 집행했고 파룬궁에 대해 모함하고 죄를 뒤집어씌우고 박해하는 전부과정을 획책하고 참여했다.

강씨집단이 파룬궁에 죄를 뒤집어씌워 모함한 대표성적인 안건 “천안문분신자살사건”은 바로 라간과 하남성 수하의 공안이 꾸며낸 것이다. 2003년 11월, 천안문분신자살사건에서의 여러 가지 의심이 되는 영상을 분석한 영문기록편 “위조한 불”(2002년 1월 제작)은 신중하게 실질적인 사건을 재현하여 그 진실과 내막을 폭로함으로써 제 51차 콜롬비아국제영화텔레비전축제에서 영예상을 탔다. 2001년 8월 14일, 국제교육발전조직은 유엔국회의에서 천안문분신자살사건에 관해 중공 당국의 국가공포주의행위를 강력하게 비난했으며 “천안문분신자살”은 파룬궁에 대한 모함이고 사람을 놀래우는 음모와 모살과



1998년 5월, 집체런공하고 있는 심양파룬궁학원들

관련된다고 하였다. 영상분석에서 표명하다싶이 전반 사건은 “정부가 혼자서 연출한 것이다.”

그외에도 파룬궁에 대하여 거짓으로 모함한 “1400 안례”등에서 민중들은 중공의 가짜、사악、투쟁의 허울을 보아냈으며 중공은 파룬궁에 죄를 뒤집어씌우고 모함하려 했으나 결국은 돌을 들어 제발등을 까고 말았다.

정법위원회、610 사무실은 사법절차를 위반하고 대규모로 파룬궁학원들을 불법적으로 랍치、강금、혹형、살인했다. 생체기관적출은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한 가운데서 가장 머리털이 곤두서게 하는 최악으로서 “이 세상에서 종래로 없었던 최악이다.” 박희래가 료녕성위부서기、성장을 담임한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4년동안은 바로 파룬궁학원의 생체장기적출의 고봉기이다. 올해 2월, 박씨의 친신 왕립군은 몰래 성도주재 미국령사관으로 도주하여 피난을 바랬으며 국제사회에 향해 중공고층의 거액의 탐오、협악한 권력투쟁、이분자박해、파룬궁박해、생체장기적출 전매、생체실험 등 위법범죄의 피비린 내막을 털어놓았다. 박희래를 힘껏 지지한 자가 바로 정법위원회서기 주영강이다.

“당이 법을 대리하는”정법위원회는 법률을 꺼리낌없이 짓밟는 최악의 괴수이므로 그가 하루라도 존재하면 “법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영원히 한마디의 빈말에 불과한 것이다.

